

눈이 침침한가요? ... 레이저로 백내장·노안 동시 치료

건강 바로 알기
노안과 백내장

광주신세계안과 김재봉 원장

서점을 운영중인 최모(55)씨는 최근 들어 부쩍 눈이 침침해져 불편함을 겪다가 안과를 방문한 후 백내장 진단을 받았다. 최씨는 백내장 수술에 대한 상담을 받던 중 돋보기도 벗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다. 책을 읽을 때마다 돋보기를 써야 해서 불편했지만 다른 방법이 없어 잠을 수박에 없었기 때문이다.

최씨는 "백내장 수술을 하며 노안까지 치료할 수 있다는 수술방법을 듣고 의료기술의 발달을 체감할 수 있었다"며 "이제 책을 읽을 때 돋보기를 찾지 않아도 돼 너무 좋다"고 말했다.

이처럼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노안·백내장 수술에 대해 광주신세계안과 김재봉 대표원장에게 들어보자.

◇해마다 증가하는 백내장 환자=대표적인 노화현상 중 하나인 백내장의 50대 환자가 40대에 비해 무려 324.6%나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 2018년 백내장 진료를 받은 50대 환자 숫자는 20만 9974명으로, 40대 환자 수보다 16만 518명(324.6%)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50대 여성이 남성보다 1.4배 더 진료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수정체는 우리 눈에서 카메라의 렌즈 역할을 한다. 나이가 들면 수정체도 노화돼

수정체 노화 흔탁해진 백내장, 방치하면 녹내장에 실명까지 환자 작업·라이프스타일 등 고려해 꼭 맞는 렌즈 선택이 중요

흔탁해지고 딱딱해져, 백내장이 발생한다. 백내장이 있으면 눈앞이 안개 낀 것처럼 흐리게 보인다. 어두운 곳 보다 밝은 곳에서 증상이 심해진다. 이외에도 ▲눈부심 ▲눈 침침함 ▲시력 저하 ▲사물이 겹쳐보임 같은 증상이 나타난다. 한 번 생긴 백내장은 좋아지지 않고 수술로만 해결이 가능하다. 방치하면 녹내장이 추가로 생기거나 최악의 경우 실명할 수 있어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해야 한다. 초기에는 약물치료를 하지만, 병의 진행을 늦춰주는 정도다. 유일한 치료법은 수술인데, 흔탁해진 수정체를 꺼낸 후 투명한 인공수정체를 삽입해주는 것이다.

◇백내장과 노안을 동시에 해결=최근 백내장은 수술과 동시에 노안과 난시를 교정하는 특수인공수정체를 삽입하는 '노안·백내장 수술'로 발전하고 있다. 과거 백내장 수술에 사용하는 인공수정체는 초점이 하나인 단초점 인공수정체 뿐이었다. 원거리나 근거리 중 한 곳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원거리를 잘 보이는 인공수정체를 선택했다면 책·신문 등 근거리를 볼 때는 돋보기를 착용해야 했다.

그러나 최근에는 초점이 여러 개인 다초점 인공수정체가 인기다. 원거리와 근거리 는 물론 중간거리 모두 선명하게 볼 수 있어, 노안까지 교정 가능하다. 다초점 인공수정체를 삽입하게 되면 신문이나 독서, 컴퓨터 작업 시에 돋보기 착용 없이도 작



김재봉 원장이 다초점 인공수정체를 삽입해 백내장과 노안을 동시에 해결하는 시술을 하고 있다. <광주신세계안과 제공>

업이 가능할 뿐 아니라 원거리도 자유자재로 볼 수 있다. 특히 다초점 인공수정체를 이용한 백내장 수술은 최근 수술 연령대가 젊어지면서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중장년층에게 인기가 높다.

광주신세계안과 김재봉 대표원장은 "노인들의 사회활동이 더욱 늘어나면서 노안·백내장 수술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며 "특히 여러 개의 안경을 갖고 다니는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어 인기를 끌고 있다"고 말했다.

◇칼 대신 레이저로 수술=특히 광주신세계안과는 카탈리스(CATALYS) 레이저 백내장 의료장비를 이용해 환자의 데이터를 입력하고, 그 수치가 적용된 레이저로 수술을 진행하기 때문에 의도대로 오차 없는 수정체낭 절개가 가능하다. 환자 개개인의 눈 상태를 고려한 맞춤 수술이 가능한 만큼 눈에 들어갈 다초점 인공수정체 타입부터 개인의 눈 상태에 맞게 입력된 절개 가능하다. 또 인공수정체 삽입시에도 의도한 길이, 깊이, 각도로 정확하게 삽입돼 질 좋은 시력을 기대할 수 있다.

집도의의 눈이 아닌 3D OCT 장비를 통해 안구정보를 수집해 이를 실시간으로 반영, 정확성을 높였으며 수술 중 안구 내 기구 사용과 초음파 사용이 최소화되면서 각종 합병증 발생 가능성을 줄였다. 그 외 수술 시간을 단축시켜 환자의 부담을 줄이고 칼을 사용하지 않아 오자 범위가 현저하게 감소했다.

◇나에게 맞는 렌즈 선택하기=다초점 인공수정체 삽입술에서 수술방식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렌즈를 선택하는 일이다. 삽입하는 렌즈의 종류에 따라 특정거리의 시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렌즈삽입 후 30~40cm의 거리는 잘 보이지만 PC와 눈 사이의 거리인 70~80cm의 거리는 잘 안 보일 수 있다. 이를 고려해 시력 상태를 따른 다양한 종류의 렌즈가 있어 수술 전 환자의 직업이나 라이프스타일, 취미, 근거리 정도, 야간활동시간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해 렌즈를 정확히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인이 평균적으로 가장 많이 보는 거리인 40~80cm까지 연속적으로 잘 볼 수 있게 도와주는 팬옵티크 렌즈, 원거리와 근거리를 불편하지 않게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테크니스 렌즈, 3가지 초점을 연속적으로 우수하게 시력을 제공해주는 심포니 렌즈까지 다양한 종류를 내 눈에 맞게

남부대학교 산학협력단 뷰티요양서비스 개강식

남부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최근 광주제1시립요양병원에서 뷰티요양서비스 개강식을 개최했다.

개강식에는 광주시립제1요양병원 조성범 이사장과 광주시의회 박미정 환경복지위원장·김광란 의원·신수정 의원, 광주시 일자리경제 오영길 정책관, 광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선 센터장, 광주과학기술진흥원 신민철 본부장, 전남과학대 뷰티미용과 이정례 교수 등이 참석했다. 개강식에서는 남부대 향장미용학과 정숙희 교수의 뷰티요양서비스 교육에 대한 강사가 진행됐다.

뷰티요양서비스는 노인복지서비스와 뷰티서비스를 접목해 노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서비스의 양질화를 위해 도입된 요양서비스로 병원·요양전담 종사자와 재

뷰티요양서비스 시범운영 교육 개강



일시 : 2019년 8월 13일(화) 16:00 장소 : 광주제1시립요양병원 주관 : 광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 남부대학교산학협력단

개강식에 참석한 광주시립제1요양병원 조성범 이사장과 광주시의회 박미정 환경복지위원장, 남부대 정숙희 교수 등이 기념사진을 촬영했다.

가서비스(가사간병)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이번 사업은 '광주시 간병 등 사회서비스 프로그램 개발 및 시범운영사업'으로 광주시와 광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주관하며, 우암병원과 광주시립요양병원에서 실시될 예정이다.

사업총괄책임자인 정숙희 교수는 "뷰티요양케어서비스 전문교육을 통해 지역 복지서비스 확대와 전국 일자리 창출에 발전적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사업에 대해 좋은 성과를 내어 다양한 뷰티서비스에 대한 체계적인 시스템 기반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동신대 한의과대학 '한의융합과학 발전 교류연구회' 개최

동신대학교 한의과대학은 최근 동신대 한의학관 세미나실에서 '한의융합과학 발전 교류연구회'를 개최했다.

동신대를 비롯해 경희대, 대구한의대, 동의대, 부산대, 우석대, 원광대, 대전대, 한국한의학연구원 등에서 한의융합과학 분야를 연구하고 있는 11명의 교수가 참여했다.

이들은 한의융합과학 분야의 최신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나장수 동신대 한의과대학장은 "교류연구회를 통해 한의학 분야의 과학적 근거를 찾아가는 연구가 더욱 활발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인공유방 보형물 이식 후 희귀암 발생 국내 첫 보고

희귀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제기돼 회수 중인 인공유방 보형물을 이식한 후 실제 희귀암이 발생한 환자가 국내에서 처음 확인됐다. 보건당국은 인공유방 보형물 이식 환자들에게 가슴이 붓는 등의 증상이 발생할 경우 즉시 병원을 찾아달라 당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대한성형외과학회는 국내에서 유방 보형물 연관 역형성 대세포 림프종(BIA-ALCL) 환자

자가 보고됐다고 최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 환자는 40대 여성으로 약 7~8년 전 유방 보형물을 삽입하는 확대술을 받았다. 최근 한 쪽 가슴이 심하게 부어 이달 6일 성형외과를 방문했다가 BIA-ALCL 의심 소견으로 대학병원에 의뢰돼 이달 13일 진단받았고, 14일 이런 사실이 대한성형외과학회와 식약처에 보고됐다.

임야
삽니다.010-6834-7400
※지분물건 환영, 신속처리※

ABC협회인증
호남 최대
발행 부수

독자와 함께 걸어온 길 67년
광주일보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예향

광고문의 (062)227-9600
신문구독 (062)220-0551
예향구독 (062)220-0550

노안수술 받으면
돋보기 없이
J1, J2 글자를
읽을 수 있습니다

1652 point
68247581 point
251649783 point
130758492 point
246371280 point
462610973 point
576214302 point
691749802 point
87814302 point

노안수술 후 읽을 수 있는 글자 크기

신세계안과 문의 1566-9988